

# 전자상거래 특산물 판매 대박 섬마을 우체국장의 지역상생

### 신안 이용기 비금우체국장 섬초·세발나지 홍보 팔걸어 한달만에 3700만원 판매고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 우체국장이 전자 상거래를 통해 지역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화제다.

주인공은 전 직원이 6명에 불과한 비금우체국 이용기(47) 국장.

지난해 7월 비금우체국장으로 부임한 이 국장은 뛰어난 품질에도 기존 재래식 판매방식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초와 세발나물, 단호박 등에 주목했다고 한다.

비금도는 여름에는 단호박, 겨울에는 섬초로 불리는 시금치, 세발나물 등 맛과 품질이 좋은 특산물을 보유한 지역이다.

섬 지역민과의 상생, 우체국 사업 다각화 등을 동시에 고민해 온 이 국장은 이 같은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면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우체국 택배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다도해 생물권 보전지역인 비금도는 비옥한 땅에서 다양한 특산물이 나고 있는 데도, 섬 지역의 특성상 판로 확보·확대가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지역민의 힘든 상황을 전해 듣고 고민 끝에 전국적인 전자상거래망을 통한 판로확대 방안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한달만에 섬초 2000상자와 세발나물 500상자를 팔아 3700여만원의 판매고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이 국장은 여기에 우체국 택배세입 70%



이용기(가운데) 비금우체국장이 비금지역 섬초, 세발나물 재배 농민들과 전자상거래 판촉 제휴를 맺고 있다. <신안군 제공>

증가라는 성과도 덩어리 얻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시작은 쉽지 않았다.

이 국장은 부임 초기인 지난해 8월, 단호박 생산농가 중 통신판매 의향이 있는 농가와 함께 전자상거래 전문업체인 G마켓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쇼핑몰 사이트에 단호박 상품 업로드를 시도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이윽고는 달리 경험·홍보 부족, 비금도 단호박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두 달여 동안 250상자 400여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이 국장은 포기하지 않고 목포우체국, 전남지방우정청 등 상급기관 전자상거래 담당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판매 노하우와 방안을 마련했으며, 비금도 겨울철 특산물인 섬초와 세발나물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고 전자상거래 업로드를 재추진했다.

또 특산물 택배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원가 부담도 낮췄다.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포장박스도 소형화·다양화하고, 고객 맞춤형 홍보전단지도 제작했다.

이 국장은 특히 전자상거래 업로드를 위한 G마켓 한곳에서 위메프와 우체국쇼핑몰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할인행사도 동시에 추진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해 있는 2800여 단위우체국에 비금도 섬초와 세발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공문 발송하고, 4만여 종사원이 이용하는 우체국 내부 게시판에 섬초와 세발나물 홍보코너도 개설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한달여 만에 매출이 4000여만원에 육박하는 등 대박을 터트리기도 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se@

# 영광 굴비 할랄 인증...16억 무슬림 시장 수출길

영광군은 “굴비가공기업 미성영어조합 법인(영광군 법성면 소재)이 한국할랄인증원으로부터 할랄(HALAL)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할랄은 ‘신이 허용한 것’이란 뜻의 아랍어로 무슬림(이슬람 신자)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국내에는 아직 할랄이라는 개념이 생소

하지만 최근 무슬림 인구(16억·전세계 인구 25%)가 증가하며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슬람교도가 많은 중동에서 식품업을 하려면 식품재료에 따라서는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가공·조리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할랄 인증을 획득한 미성영어조합법인

은 미국, 캐나다 등에 영광 굴비를 수출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이번 인증은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등 무기질 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고 영양분이 풍부한 굴비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광군은 중동,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국가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 무안군 ‘남악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 준공



# 영광 어린이 놀이터 ‘군남 하늘 보리터’ 완공

### ‘세이프 더 칠드런’ 운영비 지원

영광군과 ‘세이프 더 칠드런’이 최근 농어촌 어린이 놀이터인 ‘군남 하늘 보리터’ 완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남 하늘 보리터’는 영광군이 군 소유의 부지를 제공하고, 한솔제지와 한솔아트원제지의 후원으로 세이프 더 칠드런이 놀이공간을 만들었다. 세이프 더 칠드런 측은 또 문화예술교육, 체험활동 등을 위해 2년간 운영비를 지원한다.

놀이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위

원회와 성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아동과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운영이 된다.

유혜영 세이프 더 칠드런 호남지부장은 “군남 하늘 보리터를 통해 모든 영광지역 어린이들에게 놀 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영광부군수는 “군남 하늘 보리터 완공을 계기로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 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무안군 ‘남악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이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무안군은 지난 20일 김철주 무안군수와 이동진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악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남악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은 남악 자전거공원 일원에 총 51억원을 들여 연면적 2400㎡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배구, 배드민턴, 농구 등 체육경기장을 갖추고 있으며, 2층은 탁구장과 관리실, 3층은 체력단련실이 배치돼 있다. 특히 1층 경기장은 체육행사는 물론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 도휘에드가 조현철 대표

### 아동 복지 2천만원 기부

목포시 옥암동 있는 건설·분양업체 도휘에드가(대표 조현철)에서 최근 무안군에 아동복지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평소 아동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조현철 대표는 조순가정 및 아동생활시설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된 현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 읍·면 조순가정 및 소외가정 어린이에게 1500만원이 전달됐으며, 나머지 500만원은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아동생활시설인 소전원의 낡은 심야보일러를 교체하고 소방시설을 수리하는데 사용됐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열말연시를 맞아 여러 기업과 사회단체 및 개인이 꾸준한 운영의 손길을 보내준 덕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 영광 백수읍 어머니봉사대 경로당 어르신 전복죽 대접

영광군 백수읍 어머니봉사대(회장 이영입)는 “최근 하사 송정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따듯한 전복죽을 대접하는 등 2017년 첫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급식봉사활동은 백수읍 어머니봉사대가 가로면 화단 가꾸기 등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 목포 신안군향우회 박준성 신임 회장 취임

재목(목포) 신안군향우회 제12대 회장에 박준성(60·사진)씨가 취임했다.

재목 신안군 향우회는 지난 20일 신안관광비치호텔에서 고길호 신안군수와 정광호 신안군의회 의장, 박홍률 목포시장 등 500여명의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우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준성 신임 재목 향우회장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단결하는 신안인으로 거듭나 겠으며, 재목향우회가 발전한 것은 곧 신



안군이 발전하는 길”이라며 “재목향우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준성 회장은 신안 지도층이 고향으로 한국조류보호협회전남지부장,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se@

# 3년안에 승부 납니다!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